

Robert Vannoy 박사 , 구약 역사, 강의 27

© 2012 Robert Vannoy 박사 및 Ted Hildebrandt

야곱이 브니엘과 결혼하다 (창 29-32장)

F. 야곱 ...

2. 하란에서의 세월 - 창세기 29-31장 야곱이 라헬과 레아와 결혼함

우리는 수업 개요 시트에서 F. 인 “Jacob” 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곱 치하의 두 번째, “하란에서의 해, 창세기 29-31장” 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 되어서야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여 라반을 만났을 때, 그는 라반의 두 딸 중 작은 딸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 동안 일하기로 라반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 7년이 지나서 결혼할 날이 다가오고 그에게 라헬 대신 레아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이 끝날 무렵에 멈춘 지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29장 26절을 보면 라반은 “우리 나라에서는 동생을 장자보다 먼저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고 말합니다. 그 주간을 채우면 이번 주간도 봉사의 대가로 주겠다. 너희는 앞으로 7년 동안 나와 함께 봉사해야 한다. 야곱이 그 일을 행하여 그 칠일을 채우고 그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느니라.”

이제 다시 여러분은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많이 다른 문화적

맥락에 있습니다. 내 생각엔 일주일 안에 두 아내를 갖게 되고 누가
 자매인지 상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야곱의 가족
 내부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일어난 일이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을 맞이한
 때는 일주일 안에입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 요셉이 태어난
 후에 그가 또 일곱 해를 섬겨야 했기 때문에 둘째 일곱 해의 봉사가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Rachel을 받은 지 몇 년 후.
 30장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으며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고향으로 가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겨서 얻은 아내와 자녀를 나에게 주소서. 내가 한 봉사를
 당신께서 아십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하고 라반이 이르되 그들이 협상하여 그가 머무는 곳에서
 계약을 계속하느니라 그러나 두 번째 봉사 기간이 끝날 무렵, 그에게는
 레아뿐 아니라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에게서도 이미 열한두 명이나 되는
 자녀가 그에게 태어났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가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와의 결혼을 금하는 법 - 레위. 18:18 모세의 율법에서는

자매와 결혼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레위기 18장 18절을 보면 “네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네 처제를 취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자이크 율법 에 이르면 그 특정 유형의 상황이 언급되고 금지되어 있지만 물론 이 시점에서는 모세 율법이 주어지고 야곱이 두 자매를 아내로 삼기 훨씬 전입니다.

야곱의 일부다처제 결혼의 어려움 지금 이 순간에도 확실히 그것은 일부일처제 창설조례에 어긋난다. 우리는 창세기의 앞부분을 논의할 때 이에 대해 앞서 논의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남자가 한 아내를 두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일부일처제는 결혼의 원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 이렇게 하였고 그 결과는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30절을 보면 “그가 라헬에게도 들어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칠년을 그와 함께 섬겼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더라” 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레아가 잉태하여 당신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그는 레아의 아들입니다. 32절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르우벤이 태어났을 때 레아가 한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녀는 “분명히 주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감찰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사랑을 두고 레아와 라헬 사이에 경쟁이 벌어지고, 레아는 이제 야곱이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다가 33절에서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내가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시므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아들을 유다라고 불렀다.” 그러나 레아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라헬은 아직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이 아들들의 탄생과 관련하여 야곱의 사랑을 놓고 라헬과 레아 사이에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불임을 극복하기 위한 라헬의 다음 전략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여종을 야곱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앞부분에서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에게 자식을 낳아 주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느냐 하니 이에 야곱이 이르되 보라 내 여종 빌하가 그에게로 나아갔느니라 빌하가 잉태하고 당신은 야곱에게서 여섯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6절에 나오는 단입니다. 그런 다음 7절에서 빌하가 다시 임신합니다. 8절에서 라헬이 한 말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형과 크게 싸워 이겼더니 그가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느니라.” 자신의 직계 자손이 아니라 처녀를 통해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레아에 대한 확실한 승리를 느낍니다.

합환채 이제 레아가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함을 보고 9절에서 자기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매 일곱째 아들 갓을 낳으니라. 그리고 실바는 13절에서 또 다른 아들을 낳는데, 그는 여덟째 아들인 아셀입니다. 14절 이하에서 라헬의 계략은 이렇습니다. “레아의 장자 르우벤이 밀 추수 때에 갔다가 들에서 합환채를 발견하여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러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의 합환채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는 것이 작은 일이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그가 오늘 밤 네 아들의 합환채를 위하여 너와 동침하리라 하였느니라 저녁

때에 야곱이 들에서 나오매 레아가 나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너는 반드시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너를 내 아들의 합환채로 값을 주었느니라 하니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합환채가 아마도 찾기 힘든 특정 유형의 식물이고 임신의 무익함을 증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일어나는 일은 라헬이 이 합환채를 얻으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르우벤과 이런 식으로 흥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너를 고용하였노라” 고 말했고, 17절에서 “하나님이 레아의 뜻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으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합환채를 파는 일이 레아의 우위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 분명한 것은 레아와 라헬 사이의 투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들을 주시다 - 요셉 그러나 레아가 다시 잉태한 후에 마침내 22절을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사 그 태를 열으셨더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더라. 그녀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가장 좋아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자 이 오랜 과정 끝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

아브라함의 자손의 번식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모든 상충되는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반복하신 자손을 주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하란에서 당신은 큰 씨에 대한 약속이 처음으로 성취됩니다. 레아는 즉시 아이를 낳고 라헬은 한동안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 약속의 계열의 지속에 관한 한, 레아는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것을 더 추적해 보면 알게 되겠지만, 약속의 계열은 궁극적으로 유다 지파로 좁혀집니다. 물론 유다 지파는 결국 다윗의 집으로 더 좁아집니다.

레아에게서 야곱이 낳은 아들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삭갈 , 스불론, 디나이다. 그 다음에는 빌하에게서 단과 라헬의 여종 납달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 는 갓과 아셀을 낳는다 . 그런 다음 라헬은 요셉을 낳고 나중에는 베냐민을 낳습니다. 35

장에서는 베냐민이 태어나고 라헬은 그 때 출산 중 사망합니다.

물론 다른 문제는 야곱이 죽기 전,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후, 야곱이 결국 가족을 따라간 후, 요셉의 두 아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에서 당신은 그 두 아들이 양자로 입양되어 야곱의 아들과 동등한 지위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실제로 야곱의 손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열두 지파를 얻는 곳입니다. 잠시 거기로 돌아서면 창세기 46장 20절이 나옵니다. “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 의 딸 아스낫 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그래서 그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창세기 48 장 에서 당신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에게 데려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야곱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 땅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 과 같이... 그것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들 후에 네가 낳은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기업은 그들의 형제의 이름으로 불릴 것이니라.”

그런 다음 그 장의 뒷부분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13절에 보면 “요셉이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마주보게 하고 “... .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이는 므낫세는 장자임이니라 즉, 요셉은 오른손이 나가서 므낫세를 향하고 왼손이 에브라임에게 있게끔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는 일은 팔짱을 끼고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여 아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는 만아들이기 때문이다. 주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으소서.’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고 말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리라.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여러 번 보는 원리를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의.’ 그 날에 그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를 축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가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 세우니라” 그래서 그는 정말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형보다 더 위대할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지역에서 두드러진 지파가 되었고, 북쪽 지역 전체가 에브라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궁극적으로 야곱의 자손에 포함됩니다. 이는 야곱이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했다는 뜻입니다.

12지파 수의 모호함

학생 질문: “왜 그들은 레위를 한 지파로 간주하지 않나요?”

교수가 대답합니다. 부족 수를 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레위는 땅의 일부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 땅은 열두 지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레위인들은 레위 사람들의 성읍을 얻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실 땅을 지파에게 물려주지는 못했습니다.

학생 질문 :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을 보면 열두 사도가 있습니다. 열두 번째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될까요? 요셉일까요, 레위일까요?”

교수: 말하기 어렵네요. 종종 나중에 발견되는 숫자에서 시므온은 남쪽 유다에 흡수되어 거의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일부인지 여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받은 열두 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열두 지파를 언급할 때에도 나중에 그들을 열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추적할 수 없지만 나중에 참조할 때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과 둘을 나열하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베냐민은 남쪽에 있고 유다는 남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어떻게 합니까 ? 어쩌면 시므온은 그 시점에서 유다에 흡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실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너희는 모두 열세 명이니 레위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더하였느니라.

야곱이 부를 얻다 이 아들들이 태어난 후 하란에 있는 야곱에게 돌아가기 위해 야곱이 라반과 더 오래 머물기로 동의한 것을 30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자신의 소유물을 엄청나게 늘립니다. 이로 인해 라반의 집안 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 그러자 주님은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장

11절을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 눈을 들어 보라 가축을 탄 수양은 다 얼룩 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네가 기둥에 기름을 바르고 내게 서원했던 벤엘의 하나님이다.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네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 그래서 주님은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아내들에게 그것에 관해 말했고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라반이 조금 떨어진 밭단 아람 으로 떠나자 야곱은 가족과 재물을 모아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짐을 꾸려 떠난다.

레이첼은 아버지의 우상을 훔칩니다.

게다가 라헬은 31장 19절에서 자기 아버지의 형상을 취합니다. 이제 거기에는 *드라빔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 그들은 일종의 집안의 우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Rachel은 그것들을 가져갔습니다. 20절을 보면 야곱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자기가 나갔다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고 몰래 도망하여 갔다고 합니다. 라반은 돌아와서 자신이 사라진 것을 알고 매우 속상해합니다. 그는 야곱을 쫓아 나갔고 특히 이러한 가계

우상이 그리워서 속상해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누지 문서를 통해 그러한 우상의 소유와 상속권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그것들을 빼앗았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라반의 소유물을 모두 빼앗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우상들을 소유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권리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어느 정도 줄 사이를 읽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NIV 연구 성경 노트에는 “라헬이 보호와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흠뻑을 작은 휴대용 우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마도 그녀는 앞으로의 긴 여정에서 승배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관행은 훨씬 나중에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저술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어쨌든 라헬은 아직 이교적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메모에는 상속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6절에서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 따라잡는 것을 발견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 몰래 도적질하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것 같이 사로잡아 갔으니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왜 몰래 도망갔느냐’ 고 했고, 이어 “내가 너를 기쁘고 평안하게 보내어 내 아들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신들을 도적질하였느냐” 고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그런 일을 한 줄 전혀 모르고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와 함께 신을 만나든지 그들이 살지 못하게 하라 우리 형제들 앞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취하라’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라반은 이 우상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3절을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레아의 천막에서 나와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34절을 보면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안에 넣고 그 위에 앉았더라. 라반은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 앞에 서지 못하니 노하지 마소서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여자의 관습이 나에게 있음이니라.’” 그것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표현 방식이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NIV가 그녀가 말한 내용을 더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안장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막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우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분쟁은 야곱과 라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그들이 돌무더기를 쌓고 48절에서 라반이 “오늘 이 무더기가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느니라” 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그 곳을 갈르엣 이라고 불렀습니다 . 그리고 왜 그것이 미스바라고도 불리는지.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내 딸들을 학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심을 기억하라.’ 또 이르시되 이 무더기가 증인이요 이 기둥이 증거하노니 내가 이 무더기를 지나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를 해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이 무더기와 기둥을 지나서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 ’” 그리고 상속권과 관련된 이러한 우상 소유의 개념이 이러한 마련의 조항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더 이상 이 경계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에 동의했고 라반도 그것에 동의했고 그들은 그 합의를 마친 후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이제 49절에 대해 한 가지 설명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야곱의 축복 또는 축도라고 불립니다. 그 이름을 미스바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너희와 나 사이에 떠나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나 사이에 감찰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음이라. 당신은 종종 그 구절이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인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맥상 이것은 정말로 저주 공식이다. 여호와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니 너희가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것이 그 진술의 의미입니다. 물론 맥락에서 벗어난 다른 감정은 확실히 매우 타당하고 매우 사실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그 진술의 맥락에서 의미나 의미는 아닙니다.

학생 질문 : “이것이 Rachel의 죽음과 관련이 있나요?”

교수 : 글썄요. 나는 그 연결을 주저합니다. 나는 야곱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자신의 성실성을 걸었다고 확실히 생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는 공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우상과 함께 발견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도록 허락하려면 그 자신의 성실성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할 수 있는지 여부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주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계약을 맺고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9-31장에 나오는 하란의 해” 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

학생 질문 : “몇 년이었죠?”

교수 : 글썄요, 14년이 더 지났다는 건 아시죠?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년 이후에 그들은 여러 번 서로 다른 합의를 협상했고 매번 그것이 야곱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그는 라반에 비해 그의 가축을 계속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란의 이 기간 동안 약 20년을 이야기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3. 야곱과 브니엘 - 창세기 32장

좋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야곱과 브니엘 - 창세기 32장.” 나는 지금까지 야곱의 성품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아난 으로 돌아가는 그의 삶의 이 시점에서 , 하나님은 에서에 대한 야곱의 두려움을 사용하여 야곱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용어는 창세기 32장 30절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음이니라.” 그리고 “브니엘” 은 실제로 “엘, 즉 하나님의 얼굴” 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 장소에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배경은 야곱이 멀리 있는 동안 에서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 집을 떠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리브가는 에서가 그 일을 할까봐 두려워서 야곱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오기 전에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사자들을 보낸다. 32장 4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르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유하며 지금까지 거기 거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나에게는 소와 당나귀, 양과 염소,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주께 이 말을 보내오니 내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 그는 자신을 에서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사자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당신의 형에게 갔다가 지금 그가 당신을 맞으러 오고 있는데 400명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불길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을 두 떼로 나누었더라” 고 했습니다. 그 생각은 에서가 공격하러 온다면 우리는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될 것이고 그는 우리 모두와 “양 떼와 소 떼와 낙타도 마찬가지로” 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다 그런 다음 야곱은 기도로 돌아섰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에서로부터 구원을 구하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있습니다. 9-12절에서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네 본토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 나는 당신께서 당신 종에게 베푸신 모든 친절과 신실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지팡이만 있었는데 지금은 두 그룹이 되었습니다. 구하노니 나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가 나와서 나와 어머니들과 그 아이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를 잘되게 하여 네 자손이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에서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 그가 하는 일은 그의 전략에 따라 에서에게 줄 예물을 가지고 자기보다 먼저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작은 선물이 아닙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암염소 이백 마리와 숫염소 스무 마리, 암양 이백 마리와 숫양 스무 마리, 암약대 삼십 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마흔 마리와 황소 열 마리, 암나귀 스무 마리와 수나귀 열 마리.” 그런 다음 그는 “이 선물을 계속 진행하되 무리 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두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17절에서 그는 앞선 자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며 네 앞에 있는 이 모든 짐승의 주인은 누구냐 하거든.”

그러면 당신은 ‘그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 그것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왔고 뒤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같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절에 “그리고 너는 반드시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오리라 하라 .” 고 했습니다. 그는 ‘내가 앞으로 보내는 이 선물로 그를 달래주겠다’ 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분이 나를 영접하실지도 모릅니다. ’”

야곱이 주님의 천사와 씨름하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먼저 보냈고 22절에서 읽습니다 . 그들과 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주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주님께 축복을 간구하는 다소 신비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그 환도뼈가 부러지니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야곱' 이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왜 내 이름을 묻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이 자기와 씨름하는 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30절에서 그가 그 곳을 브니엘이라 부르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느니라” 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합니다. 나는 그가 기도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Stigers의 창세기 주석 에서 , 당신의 참고문헌 페이지 14페이지 중간쯤에 Stigers가 말하길, 지금까지 야곱은 에서를 달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전략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압복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친히 그를 막으십니다. Stigers는 이 의미를 “ 주께서 그 땅의 정당한 소유자이자 땅의 참된 수여자임을 보여 주시는 것” 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에 따라 그 땅을 주시는 방법으로만 그 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곳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구함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요, 힘으로나 간사함으로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Leupold는 이렇게 말합니다. “Jacob은 인간의 장치가 육욕적이고 인간의 독창성이 더 이상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과거에 크게 의지했던 그 자신의 영리함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극한 상황에 오직 주님만을 남겨 두었고, 비록 힘든 투쟁을 치르더라도 믿음으로 배웁니다. 하나님의 자비에만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흔적을 남기는 기도의 고뇌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내 생각에는 둘 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 시점에서 이 약속을 자기 자신의 전략이나 자기 실현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속이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카드*’의 어근에서 유래한 “야곱”에서 변경되었습니다 . *사라* 와 *엘*을 거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 그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

” 를 뜻한다. 내 생각에 문맥상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자신의 장치가 아닌 주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간구하다

그 핵심은 26절에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 내 생각에 그는 이 만남의 맥락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과 그가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의 은혜로 그를 축복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신비로운 일이지만, 나에게서는 그것이 바로 그 일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엉덩이 부분을 만졌는데 그것이 야곱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방법이 더 중요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축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12:3-4에는 이 사건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태 속에 있을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는 천사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는 울면서 그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했고, 비록 그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여기에서는 크리스토파니로서 야곱과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더 폭넓은 일반적인 표현의 신현 대신에, 이것들은 성육신 전의 표현과 동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마하나임

어디 보자, 당신은 32장에 있습니다. 즉, 나는 그것에 대해 그다지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2절과 1절의 내용을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합니까?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니 야곱이 그들을 보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 그런 다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냈다는 것을 읽습니다. 두 개의 캠프를 의미합니다. 여기 NIV 연구 노트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앞의 내용과 관련이 있고 뒤따르는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만하나임은 요단강 동쪽, 압복 북쪽 길르앗에 위치하고 있으며, 라반과 야곱이라는 두 진영이 적개심 속에서 만났고 평화롭게 헤어졌습니다. 두 진영이 다시 적대적으로 만나서 평화롭게 헤어질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지만, 야곱은 천사를 보고 그 진영에 계신 하나님을 신성한 보증으로 본 후 이 중요한 장소를 “두 진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사히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예정이었는데, 그도 에서를 만날까 두려워서 그의 가족을 두 진영으로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장치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계시가 그를 두 진영으로 나누도록 격려하는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두 진영으로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 맥락은 자신과 에서입니다. 이전에는 야곱과 라반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이름의 이유일 것이다.

비록 이 경험 중에도 야곱의 태도는 에서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말로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좋아요, 이제 그만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 여기로 가서 요셉과 야곱의 축복에 대한 손실을 계속할 것입니다.

레아 세라오(Leah Serao)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Ted Hildebrandt가 대략적으로 편집함

Chelsea Kapes의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가 다시 해설함